

‘혁신적 포용교육’으로 ‘교육 르네상스’ 열겠다

이정선 시교육감, 취임 3주년 기념 성과·계획 발표
기초학력 향상 등... ‘이 정부 정책’ 발맞춰 도약할 것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26일 “깊숙이 뿌리내린 광주학생의 실력을 토대로 ‘광주교육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3년의 실력,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적 포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하루도 쉬 없이 달려왔다”며 “광주학생들은 다양한 실력을 키우고 따뜻한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했다”고 자평했다.

직선4기 광주교육은 맞춤형 교육으로 초등 기초학력 부진 학생수 감소, 수능 성적 반등, 상급학교 진학을 향상, 직업계고 경쟁력 구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

2022년 8명에 불과했던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3년 만에 10배 이상 확대하고,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에 적극 나서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1% 미만으로 감소했다.

높은 공부방 ‘365-스터디룸’, 최신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1고교 1대입전문디렉터’ 등을 도입, 수능 중상위권 비율 증가, 하위권 감소 등의 성과를 이뤘다.

학생 교육경비 지원 사업 ‘꿈드림미’는 광주학생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는 기반이 됐다. 올해부터는 학생 무상 교통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해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배움의 장을 넓히고 있다.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에 따라 배움과 활동범위를 동네, 전국, 세계로 확대하는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는 5·18 광주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광산군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끌어올렸고, 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은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형 교실 ‘AI팩토리’를 158개교에 구축했으며, 학생 1인당 1스마트기기 무상 보급, 교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수 등을 추진했다. 특히 교원 연수는 교사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수업을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가등급’,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 9개 분야에서 모두 최고 평가를 받는 쾌거도 이뤘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26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간 광주교육 성과와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이 교육감은 지난 3년간 성과를 토대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광주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꾀할 구상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330억원, 재정집행률 목표달성 인센티브 238억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47억70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41억6000만원 등 추가로 확보한 831억원을 활용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광주학생이 ‘광주정신’을 토대로 세계민주시민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사·평화통일 교육을 강화하고, 7월 1일자로 본청에 ‘인성생활교육과’를 신설해 교육공동체의 마음건강을 더욱 촘촘히 살핀다.

수학·과학 교육을 강화해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만들고, 2026년 2월에는 북구 오차동에 전국 최초로 AI 교육 종합기관 ‘광주AI교육원’을 개소해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AI기술을 반영한 전시·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 학생 전용 예술공간 ‘K-컬처 공연장’ 조성, ‘글로벌 청소년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등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 기반을 다진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 3년간 정성으로 쌓은 실력은 광주교육의 든든한 힘이 됐다”며 “광주교육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남은 임기에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광주교육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제52회 광일보훈대상 시상식 제52회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이 26일 광주시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진행됐다. 최권일 광주일보 편집국장,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보훈대상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의사 없고 인터넷 안되고...전남 ‘먼 섬’ 생활인프라 열악

9곳 병원·보건소 없는 ‘의료공백’
대형마트·은행 가는데 2시간57분
상수도관 절반은 물 빠져나가고
WIFI는 커녕 인터넷 꿈도 못꿈

섬 주민들은 여전히 취약한 생활 시설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먼섬’ 대부분이 의료·거주·교통 등 기초 정주 기반 시설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먼섬’은 ‘국도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한 ‘육지에서 항로 거리 50km 이상 떨어진 유인 섬’이나 ‘영해기선에 해당하는 유인도서’를 말한다. 국내에는 모두 43개가 있으며, 이들 섬 중 58.1%인 25개가 전남에 몰려있다.

26일 한국섬진흥원이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국도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먼섬 43곳 중 14곳(32.6%)이 의료시설과 인력이 전혀 없는 ‘완전 의료공백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이하 인력만 있는 ‘준 의료공백지’도 18곳(41.9%)에 달해 전체의 75%가 의료 사각지대인 셈이다.

전남 25개 먼섬의 경우 무려 84%(21곳)가 의료공백지로 분류됐다.

진도군 상하죽도·맹골도·죽도(조도)·곽도, 신안군 상태도·중태도, 영광군 대척만도·죽도·횡도 등 9개는 병원·보건소 등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완전 의료공백’ 섬이었다.

여수시 동도·서도, 완도군 여서도, 영광군 안마도, 진도군 동거차도·서거차도, 신안군 장도·영산도·대둔도·하태도·만재도·다물도 등 12곳은 의원 또는 의료인 수가 1인 이하인 ‘준 의료공백’ 섬이다.

상급의료기관 진료가 불가능한 섬도 많았다. 여수시 거문도, 신안군 가거도·홍도·흑산도 등 4개 섬은 응급의료 시설과 전문인력 등이 배치된 상급병원이 없어 중증질환자의 경우 진료를 받기 어렵다.

먼섬은 낮은 상수도 보급률, 시설 노후화로 인한 높은 누수율로 물 공급도 쉽지 않았다.

신안군 대흑산도는 상수도관 누수율이 47%로 절반에 가까운 물이 빠져나가는 상태다. 신안군 장도·영산도·대둔도·홍도·상태도·중태도·하태도·가거도·만재도·다물도 등 10곳도 누수율이

30.7%에 달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보 기술(IT) 강국’이라는 명성은 외딴 섬마을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진도군 곶도는 인터넷, 5G, LTE, 3G, WIFI 어느 것도 이용할 수 없다. 영광군 횡도, 진도군 동거차도·서거차도·상하죽도·맹골도·죽도(조도), 신안군 장도·영산도·중태도·만재도·다물도도 인터넷을 전혀 이용할 수 없다.

또 신안군 홍도에서는 대형마트에 가는데 2시간 57분이 걸려 생필품을 구하기조차 쉽지 않고 은행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도 2시간 57분이 걸렸다. 신안군 가거도에서는 국공립도서관까지 가려면 3시간 11분이 걸렸다.

전남 먼섬의 7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6.0%였다. 이보다보니 인구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전남권 주요 섬의 평균 인구 감소율은 8년간 16%에 달했다. 홍도도 인구가 25% 줄었다.

한국섬진흥원 관계자는 “국도외곽 먼섬 지역은 접근성 제약, 높은 이동비용, 공공서비스 이용 제약, 의료서비스 이용 및 접근의 실질적인 공백 상태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섬별·분야별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조선업 이주노동자도 ‘이름표 안전모’ 쓴다

27일 해남 대한조선에서 전달

조선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붙은 안전모를 받는다.

26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27일 오전 11시 해남군 대한조선 교육장에서 ‘전남지역 이주노동자 안전모 전달식’ 행사를 열고 100명

의 이주노동자에게 국가와 이름이 적힌 안전모를 전달한다.

행사는 호황에도 한국인 숙련공 구하기 힘든 국내 조선업을 지탱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야’, ‘임마’ 등으로 불리며 인격적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노동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지역노

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선정된 데 따라 국비와 지방비 등 210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전남지역 산업현장을 찾아 안전모를 보급하면서 인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문길주 노동권익센터장은 “그동안 국내 조선산업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고 안전모의 착용율도 낮다”며 “안전하고 중대재해 없는 작업현장, 이주노동자들이 존중되는 작업현장을 만들어 가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